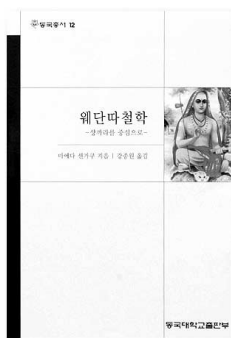


일반인을 위한 불교 학술서 2권 선보여



삼국유사 사료비판
하정웅 지음
민족사 | 2만원



웨단따 철학
마에다 센가쿠 지음
강종원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2천원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불교 학술서가 잇달아 출간됐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본서인 <삼국유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삼국유사 사료비판>과 인도철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단따 철학을 소개하는 <웨단따 철학>이 그것이다.

우리 학술사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 만큼 많은 연구가 이뤄진 역사서도 드물다. 하지만 <삼국유사> 만큼 많은 이설(異說)과 금금증을 간직하고 있는 책도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 전문위원으로 일본 교토 고미술관 특별연구원에 연수 중인 하정웅 씨는 <삼국유사 사료비판>에서 사료사적 연구를 토대로 <삼국유사>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곧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고 '완성작도 아니며' '고려시대에 간행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삼국유사>에 대해 알고 있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일연 스님(1206~1289)이 지은 사서(史書)'라는 기본 전제를 뒤엎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이기백(한림대) 채상식(부산대) 유탁일(부산대) 김상현(동국대)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고 연구했던 <삼국

유사>에 대한 논쟁을 정리, 심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씨는 선학(先學)들이 제기한 의문 중 편찬 시점과 편찬자의 정체 그리고 간행시기, 원고 완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히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교간연구> <삼국유사일차연구> <교감역주삼국유사> 등을 통해 <삼국유사>에 대한 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현존하는 고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를 통해 내적 사료비판에 접근하고 있다.

하씨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삼국유사

생전에 그 외의 편본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책 뒤편에는 연구에 쓰인 고판본인 <모소소장고판본(某氏所藏古版本)>과 <조종업구장고판본(趙鍾業舊藏古版本)>을 실어 독자들이 직접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3천년 이상을 거친 인도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철학은 무엇일까?

한 <웨단따 철학> 출간이 반가운 이유다.

<웨단따 철학>은 웨단따 철학을 집대성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분파를 파생시킨 인도철학의 최고 철학자인 상까라(Sankara, 700~750년경)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웨단따(Vedanta)'는 웨다(Veda)의 끝(anta)이라는 뜻으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바라문교의 성전 <웨다>의 종결부를 형성하면서 그 궁극적 취지를 서술한다는 '우파니샤드'와 동의어로 쓰인다.

또한 웨단따 학파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설의 통일적 해설과 체계화를 지향하는 철학자 집단을 일컫는다.

불교학 및 인도철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수제자인 마에다 교수는 책에서 웨단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상까라의 독자적인 저술인 <우빠데사 사하스리>의 문헌학적 연구결과를 함께 볼 수 있게 했다. 1장에 서는 웨단따 철학 전체를 개관하고 웨단따 학파 및 그 안에서 불이일원론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폈다.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까라라는 인물과 그 사상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웨단따 철학이 인도사상의 중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피고 있다.

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삼국유사 사료비판

편찬시기·저자 관련 논쟁 집중 다뤄

웨단따 철학

인도 최고 철학자 상까라 사상 정리

>의 오자와 탐자는 일연 스님과 무학대사 등의 찬자(撰者)가 직접 편찬 및 간행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까닭에 미완성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목(條目)간의 유기적 관계가 없다는 것도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 백만 증거라고 말한다.

이어 권 제5의 서두에 찬자인 일연 스님의 이름과 직위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스님 생전에 권 제5의 집필은 완성되었으나, 스님의 비문에 <삼국유사>의 서명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연 스님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교수는 단언코 "웨단따(베단따) 철학"이라고 말한다. 상카, 요가, 나야, 와이세시카, 미망사, 웨단따 등 인도의 여섯 정통 철학과 중 현대에 이르러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동시에 힌두교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 바로 웨단따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웨단따 철학이 인도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간 우리 학술·출판계에서는 웨단따 철학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마에다 교수의 <웨단따 철학> 상까라를 중심으로를 번역

발품 팔아 수집한 아름다운 불교설화



이경애(52·사진)씨는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크다.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건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 둘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주워 온 물건들이 식당과 집을 가득 채우게 되자 이번엔 아예 '북촌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릴 뻔한 기억들을 되살려내려 된 것이다.

최근 펴낸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도 이씨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낳은 결과물이다. 1990년대 중반 불교방송에서 '불교설화'란 프로그램 구성작가로 일할 당시 수집한 불교설화가 이씨의 취재노트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고 나서, 애써 수집한 불교설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책으로 펴낸 것이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설화 중 70~80% 정도가 불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찰 신도들조차 사찰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씨는 설화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과 지역 문화원에서 사찰 창건기와 군지(郡誌), 신문 등을 뒤지기도 하고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노스님과 공양부 보살에게서 구전 설화를 채집하기도 했다. 수집한 설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하던 이씨는 불교설화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최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채집한 설화를 정확히 정리하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읽기 좋게 다듬는데 중점을 뒀다.

이책에는 거제 보현암 삼신굴 설화, 춘천 청평사 회전문 설화 등 이씨가 발품을 팔아 수집한 18편의 설화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이경애 지음 | 솔바람 | 9천원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인된 전문영양사 건강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제권 신사님이 역저한 <마로보린 전문영양사 300명중 7명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책에 빠짐없이 펴내고 총하여 공인 청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수행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의심 끊고 염불하게
김지수 지음
불광출판부 | 1만원

중국 인공 대사의 염불 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를 번역해 국내에 염불 수행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김지수 교수(전 남대 법대)가 5년만에 두 번째 책 <의심 끊고 염불하세>를 펴냈다.

첫 번째 책에서 인공 대사가 설한 참선과 염불 수행의 장단점을 소개했다면, <의심 끊고 염불하세>에서는 천태지자 대사의 <정토십의론> 몽동 선사(蒙童 僧師)의 <정토법어> 연지 대사의 <관법론> 전등 대사의 <정토법어> 감산 대사의 <염불필요> 성암 대사의 <관 발보리심론> 인공 대사의 <편지설법> 등을 간추려 옮겨 염불이란 어떤 수행법인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그동안 틈틈이 염불 관련 법문집을 번역해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해 온 김 교수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가피에 힘입어 극락 정토 왕생을 발원하고 착실히 염불 수행하는 정도법문보다 더 수승한 법문은 없다"고 강

조한다. "최근 염불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도 염불법문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이 서질 없는데 어떻게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염불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승대덕들의 정도법문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풀어주고 염불법문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각 경전마다 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우리말 해석과 옮김이의 보충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까닭' '악업중생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도리' '화엄경의 핵심요지' 등 독자들이 경전을 읽어가며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하게 정리해 염불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철새들의 동지 DMZ 풍경

중이 여자하고 걸어가거나 말거나
도연 스님 글/사진 | 당그레 | 1만원



"새 동지를 발견하면 가르쳐달라며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동지들' 여다보거나 사진 촬영하지 않기는 내가 정해놓은, 산에 사는 원칙 중 하나여서 동지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체 합니다. 평화로운 우리 집 창문으로 낯선 사람이 불꽃 들여다보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를 생각한다면 합부로 새나 길짐승의 동지를 들여다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DMZ(비무장지대) 포토그래피'로 널리 알려진 도연 스님이 포토에세이집 <중이 여자하고 걸어가거나 말거나>를 펴냈다.



민통선 내 철원평야에서 희귀 철새를 사진에 담아 온 스님은 이번 책에서 그동안 홈페이지(hellonizen.com)에 연재했던 글과 사진을 가려 담았다.

강원도 철원 지장산의 '컨테이너 토굴'에서 살며 새벽 기도과 명상으로 아침을 열고, 돌 깃기와 새들에게 먹이주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스님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며 느꼈던 단상들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촬영한 새와 나비, 곤충, 꽃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자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는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들을 수십군데 찾았다니고도 못 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향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음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실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자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미소스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만야경』, 『묘법연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금강경』, 용수의 『중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의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의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수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총림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음(自音)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영주) 선학과 졸업 후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인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총림 은혜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